

홍콩, 2046

20년 뒤 홍콩은 어떨 거 같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원고는 여기 여전히 남겠지.
내가 본 몇 겹의 말과 아트의 층들, 도시들, 숨은 계단들 모두 다르게 남겠지.
“예, 이 각도로 보면, 이 도시가 또 달리 보이네.” 화려한 폭죽 터지던 아트 바젤 홍콩의 첫날 밤,
자본과 아트의 ‘슈퍼 커넥터’ 앰플러스 뮤지엄 파티장 한복판에서 들은 말. 아트 바젤 홍콩 2026의 갓은 얼굴 아래.

망한 원고를 쥐고 홍콩에 왔다. 만약 원고가 종이 위에 있었다면 진작 구겨 버렸을 테지만, 일단은 노트북 안에 있었다. 그 채로 원고에 대한 생각은 접고 싶었다. 다섯 시간이 채 안 되는 비행시간만이라도 원고 생각은 안 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착하고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단 한 글자도 없기 싫은 원고였다. 그런 사이 더운 바람이 덮쳐 왔다. 다른 공기의 다른 냄새가 난다. 여긴 홍콩이다. 나는 원가 많이 꺼입은 채였다. 한국에는 봄이 덜 왔을뿐더러, 작은 캐리어에 이미 짐을 수북이 담은 터라 원가 더 입었어야만 했다. 티셔츠 위에 니트톱 위에 또 후드집업을 입은 나는 서울에서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건 서울에서의 일이었다. 홍콩에서는 분명 이상해 보였을 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아닌 척 나의 허울들을 벗어났다. 더워서만은 아니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서울과는 단 한 시간의 시차. 로밍이 켜지자 “파일 한번 확인해줘” 같은 연락이 금세 왕왕 울리고.





서울과 한 시간 차이 나는 거리지만 한 시간 정도의 차이가 아니었다. 홍콩이 처음이기도 했던 탓일까. 공항에서 내려 호텔까지 향하는 길은 흡사 여의도와 다를 바 없었는데, 분명 차이완Chai Wan부터는 이 도시가 실감 났다. 의도적인가 싶을 정도로 고불고불한 길을 지나며 나는 생각했다. 좁은 땅에서 극도의 효율을 냈구나. 건물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 않은 대신 모든 건물이 높이 솟아 있었다. 어떤 압박을 견디는 이들이 눌러붙기는커녕 서로 이겨내기 위해 높이 높이 올라간 듯 보였다. 생의 절박, 생의 의지. 그런 단어로 이 도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 같았다. 그 와중에 무성한 녹음까지 한 무더기로 의도적으로 보였다. 어쩔 지나는 사람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왔다 떠나는 관광객들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흡사 환승역 같은 정신없음 속에서 나는 내가 다른 것도 아닌 '아트'를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받아들여야 했다. 기뻐해야 했다. 그 무엇도 짚히지 않는 무덤고 안개 짙은 밤, 첫날엔 분명 그랬다.

호텔 방의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영 시원치 않았다. 호텔 방은 38층이었다. 내가 머문 호프웰 호텔은 지을 당시 홍콩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한다. 38층에서 내려다보는 홍콩은 서울과 다른없는 빌딩 숲 뷰였다. 어쩌면 저기, 방에서 보이는 저 끝이 홍콩의 끝 아닐까. 3일이면 홍콩은 다 둘러 볼 수 있다던데, 무려 여기서 일주일의 머물 생각을 하니 아득했다.



곡선과 강

“홍콩은 멈추지 않습니다. 홍콩은 걸음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반짜리 비행에 맞춰 영화 한 편 보기 위해 킨 항공사의 모니터 속에서는 이런 광고 멘트가 흘러나왔다. 홍콩의 고층 건물들 아래 잘 다려진 오피스 룩을 입은 사람들이 빠른 컷 전환으로 지나간다. 그들은 깔끔한 교차로를 건너며 저런 이야기길 했었다.

아트 바젤 이틀 전, 내가 홍콩에 도착한 그 주부터 홍콩은 아트 위크로의 돌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타워 속에 있는' 화이트 큐브, 데이비드 즈위너, 탕 컨템퍼러리 아트, 하우저앤위스 등의 대형 갤러리에서는 하나둘 오프닝 소식이 들려오고, 센트럴의 수많은 벽화 위에는 아트 위크 시즌에 열리는 여러 행사의 포스터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주거, 상업, 금융, 유흥은 건물의 층층마다 전시 되듯 존재했으니 어떤 수직의 에너지 속에 들어와 있는 듯했다.

처음으로 수평으로 이 도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건 도시 중앙의 빅토리아 하버. 직선의 도시 속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곡선이다. 그 광경을 홍콩 최초의 공립 미술관 HKMoA의 코앞에서 봤다. 물결을 연상시키는 유리 외관을 보곤 이 건물을 의심하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외관 통창의 전경으로 '와' 하는 탄성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건 마치 이 건물이 통으로 그 강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듯한 느낌을 내게 주었기 때문이다. 미술관 밖, 강과 나무와 사람과 그리고 곡선들, 나는 자주 시선이 바깥을 향하는 걸 알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홍콩의 공공성은 무엇일까. 옛것과 새것, 중국과 서양, 로컬과 국제 사이 느껴질 법한 괴리를 유연하게 잡아주던 건 홍콩의 곡선일 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뒤로하고 다시 홍콩의 직선 속으로 향했다.

개방

도시락 먹는 사람. 갤러리 앞에서 누가 아무렇지 않게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 지나는 사람들을 막는 문 하나 없이 전방위로 열려 있던 'Oil 아트 스페이스'의 그 자리 그 모습이 무척 이질적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1908년 지어진 홍콩 요트 클럽 하우스에서 지금은 공공 예술을 위한 공간이 된 에는 갤러리와 잔디밭, 작은 정원, 의자, 침터로 구성된 아주 친근한 곳이었다. 그저 지나면 갤러리인지 분간 가지 않는 이곳에서, 작가와 관람객들이 공원처럼 머물며 오가며 예술이 도시 한복판에 존재했다. "예술이 일상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건 평범한 것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예술이 사람들이 먹고, 걷고, 쉬는 곳에 함께 있을 때, 예술은 더 이상 멀거나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꼭 그런 게 갤러리나 일부 작가들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저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조용한 대화, 무언기를 공유하는 순간,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술이 만들어준다면요" Oil의 큐레이터 Bamboo가 말했다.

잔디밭에 딱 대어섯 개의 의자가 있었다. 그에게 몇 가지를 더 물었다. "이 휴식 공간은 누구나 편안하게 쉬면서 역사적 건물의 아름다움과 주변의 초록빛 자연, 정원, 나무, 새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저기, Oil의 비치 체어 보이죠? 휴식 공간은 공공 예술 경험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해요." 점심시간을 살짝 비켜간 시간. 누가 봐도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이 그 비치 체어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 같았다. "Sunmoji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24개의 독특한 곡선형 좌석을 그대로 전시했었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도 예술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비치 체어가 설치된 곳은 정규 운영 시간 외에도 24시간 접근 가능한 공공 구역으로, 예술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설치물 중 하나였다.

이제는 '도시 속 예술 오아시스'를 지향한다. 밀도 높은 도시 속에서 보기 드문 개방감이 느껴지는 건 다 그들의 의도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멈추고 쉬고 싶어 한다. 이에 맞게 Bamboo는 네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신진 혹은 로컬 작가들의 작업에 주목해요. 프로그램이 이 도시의 커뮤니티 사이에 반응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면서요. 국내외 작가들의 대규모 설치 작업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건 Oil Spotlight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모여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Oil Daily가 있어요. 종종 우리는 세대와 상관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차 한잔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Oil OnSite는 장소 특정적인 작업을 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메인 갤러리 외에 여기 건축 공간 같은 참고 시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장소가 원래 지닌 역사적인 의미와 작품들이 공명한다고도 생각해요. 저기 작은 발 보이죠? 우리는 여기서 여러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예술과 자연의 교차점을 탐구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5월에는 생강꽃, 6월에는 비파나무가 제철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로컬 농부들과 모여서 하는 거죠. 어떻게 먹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환경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Oil SoGreen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홍콩은 예술하기에 대체 어떤 도시일까. 큐레이터 Bamboo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콤팩트하다는 것. 그래서 예술에 더 쉽게 접근하기 좋은 거죠. 도시가 활기차기도 하고요. 이런 촘촘한 도시 속에서 예술도 함께 엮여 있는 듯 보여요. 그리고 그 층위가 다양해요. 곧 열릴 아트 페어도 있고, 미술관도 여러 곳에 있고요. 크고 작은 갤러리부터 Oil 같은 커뮤니티 중심 공간까지요. 저는 홍콩 사람들에게 예술은 이미 친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렇게 저 비치 체어에 누워 햇빛을 쬐고 있는 사람처럼요." 분명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임은, 틀림없었다.



발견과 만남

아트 바젤 한복판에서 나는 대화들. 아트 바젤 홍콩의 디렉터 양젤 시앙러 왈, “소울 메이트를 찾으세요.”

Sweetwater의 작가 Sofia Defino Leiby

기억에 남는 만남 친구의 가족 중 전혀 다른 업계(비디오게임 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분과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페어를 둘러보는 경험은 또 달랐다. 나는 주로 판화와 회화 작업을 하지만, 3D 요소도 쓴다. 그래서 아트 바젤 내내 내 솔로 부스가 여러 작가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 번 이상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전시나 아트 페어에서 이질성Heterogeneity은 그리 흔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몸소 느꼈다. 오는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관람객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제 작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또 한 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동시대 미술이란 현재, 특히 아트 페어에서 동시대 미술을 감상하는 일은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인 것 같다. 그래서 미술의 엔터테인먼트적 가치와 관람객 수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작품에도, 그리고 대중에게도 해롭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대중을 과소평가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튜디오에서 홀로, 또는 한 공동체와의 대화 속에서, 학교에서, 혹은 타인과의 협업 속에서 탄생하는 ‘동시대 미술’을 여전히 사랑한다. 보다 실험적이고 비상업적이고, 비가시적인 일이 많았으면 한다. 난 그런 일들의 팬이다.

Sweetwater는 2018년에 개관한 베를린에 있는 갤러리다. 다양한 매체에 걸쳐 개념적 작업을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조명한다. 갤러리 외 오프사이트 프로젝트들도 다수 진행한다.



Sofia Defino Leiby, 'Dolls Museum II', 2026. Collage, oil on wood artist panel, 25 x38 cm.



Sofia Defino Leiby, 'Your Current Experience', 2026. Collage, shopping bag, UV print, epoxy cast on panel, 30 x 40 cm.

TARQ의 디렉터 Hena Kapadia

홍콩 시장 2018년부터 아트 바젤 홍콩에 참여해 왔다. 그동안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었다. 홍콩 시장은 2020년 이후 아시아, 특히 중국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듯하다. 1년 만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는데 무척 설렜다. 홍콩의 커뮤니티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교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디스커버리즈 섹션 넓은 미술계에서 자신만의 깊이와 성숙도를 가진 작가를 조명할 수 있는 섹션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이런 작가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보여지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다.

TARQ는 인도 뭍바이에 거점을 둔 갤러리로, 인도의 동시대 미술을 위한 인큐베이터다. TARQ는 산스크리트어로 ‘토론, 추상적 추론, 논리, 원인’을 뜻한다.

TARQ의 작가 Amba Sayal-Bennett

디스커버리즈 섹션 디스커버리즈의 경우 그룹이 아닌 솔로 프레젠테이션이 대부분이라 페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보이지 않던 작업을 조명하는 데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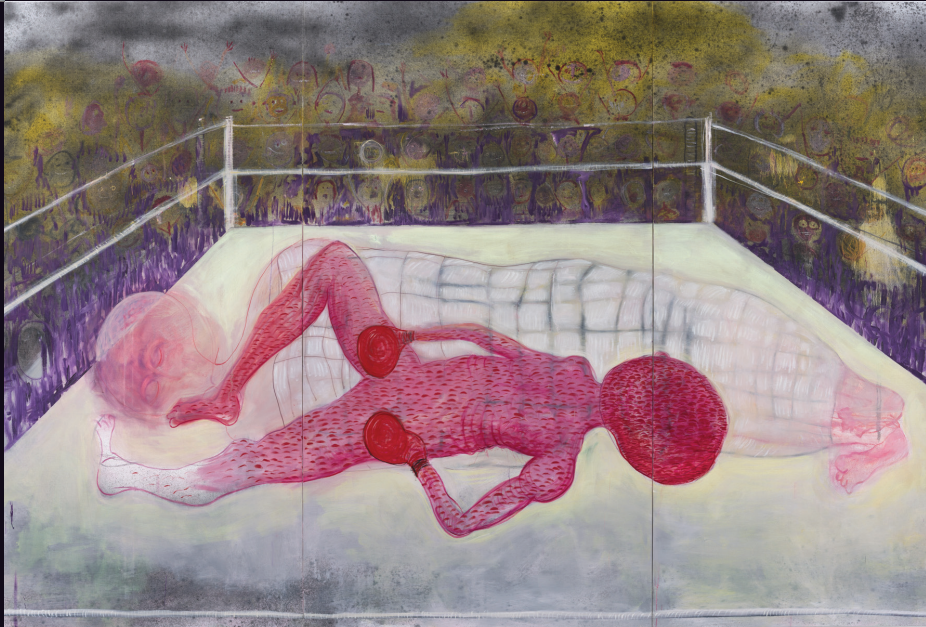
기억에 남는 만남 내 작품 중 ‘Auricle’의 경우, 서있는 위치에 따라 불투명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작품 주변을 직접 돌아다니며 움직여야 했다.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 보기 좋았다.

작업 ‘Auricle’은 신체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지식 체계에 관한 작품이다. 레진의 반투명성이 작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CT 스캔이나 엑스레이선처럼 다른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 사용되는 시점과 3D 오브젝트의 제작 또는 시공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사한지 생각했다. 이 작업을 위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건축사가 Beatriz Colomina의 글에 주목했다. 그는 근대건축에서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며,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 엑스레이, 세균학이 모두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는 점을 짚는다. 무의식, 골격, 미생물, 건축물의 구조 같은 것을 ‘드러나게’ 하고 이를 이해하면, 다시 구성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 Sweetwater, TARQ



Brilant Milazimi, 'Who talks first?', 2025, Oil on canvas, 180 x 200 cm.



Brilant Milazimi, 'The sleeping fighters', 2025, Oil on canvas, triptych: 290 x 480 cm.

iSABELLA RiTTER의 디렉터 Isabella Ritter

아트 바젤 아트 바젤은 단순히 시장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엄격한 선정 기준, 기관으로서의 신뢰도, 그리고 글로벌 예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그 기초를 설정하기에 중요하다.

홍콩 시장 홍콩은 기관과 독립Scene, 로컬과 글로벌이 이례적인 속도와 유동성으로 교차하고 수렴하는 독특한 지점을 가진다. 이는 동서양 문화의 만남의 장이었던 도시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홍콩의 장점이라면, 이렇듯 국제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지역적으로도 섬세하게 각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각적이고 다층적이며 명확히 크로스 컬처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동시대 미술이란 동시대성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느냐에 의해 정의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아트, 아날로그든 현재 우리의 존재 방식과 질문과 맞닿아 있다면 무엇이든 ‘동시대적’일 수 있다. 디지털과 비디지털 미술 형식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정한 엄밀함이나 질을 갖춘 디지털 작업은 더 넓은 담론 속에 통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들을 별도로 분류하는 시각은 점점 구시대적으로 느껴진다.

iSABELLA RiTTER는 파리의 LambdaLambdaLambda의 뒤를 이어 지난해 문을 연 파리 기반의 갤러리다. ‘다 안다고 생각했던 순간 깜짝 놀라게 하

© ISABELLA RiTTER



Amba Sayal-Bennett, 'Auricle', 2026, SLA, Resin, 27.56 x 29.92 x 22.83 inches.

는’ 날카로운 예술이 가득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

iSABELLA RiTTER의 작가 Brilant Milazimi

디스커버리즈 섹션 의미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되길 바랐다.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던, 깊이 애착을 느끼는 작품 위주로 선별했다. 대중들이 아트 바젤 한복판에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랐다. 전시 작품 중 ‘The Sleeping Fighters’를 소개하고 싶다. 그림 속 인물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불분명해 보인다. 이들은 쉬고 있는 것일 수도, 패배한 것일 수도, 무력한 상태일 수도 있다. 사실은 복싱 경기 직후다. 이 인물들을 둘러싼 배경에는 환호하는 군중들로 가득하다. 이 그림은 ‘사건의 공공성에 대해 말하는데, 선수들의 사적인 고통과 취약함이 어떻게 집단적 오락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안긴다.

‘이미징 아티스트’라는 말 솔직히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는 항상 ‘되어가는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서 탐색해야 하는 게 작가다.

미술이 발견해야 하는 것 진실 혹은 거짓.

동시대 미술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우리 삶의 방식이 크게 흔들리는 이 시대에, 미술이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확실하긴 어렵다. 동시대 미술은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체감되도록’ 나아가야 한다.



Nabilah Nordin, 'Modern Art', 2026, Acrylic paint, aluminium mesh, aqua resin, basswood, construction adhesive, epoxy modelling compound, epoxy resin, pigments, welded mild steel, wood, 40.0 x 26.7 x 16.8 cm.



Nabilah Nordin, 'Script Site', 2026, Aluminium mesh, aqua resin, epoxy modelling compound, epoxy resin, fibre dyes, pigment powder, lime paint, welded mild steel, 37.8 x 36.2 x 16.5 cm.



Nabilah Nordin, 'Michelin E-Smoke', 2026, Aluminium mesh, aqua resin, basswood, construction adhesive, epoxy modelling compound, spray paint, welded steel, white pigment, 41.0 x 27.6 x 26 cm.



Nabilah Nordin, 'Two Bridges', 2026, Aluminium mesh, aqua resin, epoxy modelling compound, epoxy resin, glass fibre reinforcement, mulberry paper, PVA adhesive, welded mild steel, welded stainless steel, lime paint, 53.3 x 24.1 x 27.9 cm.



Nabilah Nordin, '516-361-9554', 2026, Aluminium mesh, aqua resin, concrete mix, concrete pigments, epoxy modelling compound, epoxy resin, eucalyptus mulch, handmade paper, nails, scagliola, spray paint, stainless steel, welded steel, studio wood, 40.6 x 41.6 x 35.6 cm.

SPURS의 디렉터 Sherry Lai

아트 바젤 홍콩 2026 ‘물성으로의 회귀’와 ‘역사적 재발견’이 올해의 핵심 키워드였다. 시장이 재조정되고 있다고 느낀다. 컬렉터들의 방식이 FOMO에서 보다 분석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정 작가에 대한 열풍에 쫓기듯 구매하고, 페어가 달리기 전에 2차 시장에서 가격이 두 배가 되는 현상이 많이 줄었다. 차익을 노리고 작품을 투기하는 이들도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 맥락이 중요해졌다. 어찌면 지난 2~3년 동안 아트 바젤에서 중요한 건 가장 핫한 30대 화가의 작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저평가된 작가와 작품이 재발견되는 해가 아니었나 싶다. 아시아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20세기 작업들이 각광받았다. 이를테면 한국의 단색화 거장들, 일본의 구타이, 필리핀의 모더니스트 작가들이 이전보다 깊이 있게 조명되고 있다. 새로움보다 깊이와 역사적 중요성이 주목받는 시대다.

디스커버리즈 섹션 큐레이터와 관계자들이 여전히 “가장 기대되는 발견이자 숨겨진 보석”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기억에 남는 만남 작가 Roksana의 배경과 현재 이란의 사회·정치적 상황이 교차하며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사람들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공감하면서, 작가의 배경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했다.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순간순간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또한 작품 속에 반복되는 모녀의 이야기가 많은 관람객의 마음을 건드렸다고 생각한다.

SPURS는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을 아우르는 중국 현대미술계의 대표적인 갤러리다. 문화대혁명 이후 등장한 중국 실험미술의 흐름을 추적하며, 1970년대 ‘Stars’와 ‘No Name Group’에서 촉발된 미술운동부터 1980년대 베이징 추상미술, 1990년대 뉴미디어 운동을 거쳐,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젊은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그 진화 과정을 조명한다.

SPURS의 작가 Roksana Pirouzmand

디스커버리즈 섹션 아트 페어가 때로는 시장 중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디스커버리즈 섹션은 작가가 하나의 완결된 작업 세계를 보여 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무척 의미 있었다. ‘leaning, rocking, sanding’은 그런 점에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었다. 한 도자기 몸통이 두 개로 나뉘어 어깨를 축으로 서로 기대고 있는 형태로, 한쪽의 무게가 다른 쪽을 지탱하도록 구성되었다. 몸통 내부에서 뿔어 나온 실이 두 방향으로 당겨지는데, 하나는 바닥에 느슨하게 놓이고, 다른 하나는 모터 축에 연결되어 있다. 모터가 작동하면 한쪽 몸통이 흔들리고, 그에 기댄 다른 몸통도 함께 움직인다. 맞닿은 어깨 부분에서는 마찰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이 갈리고 마모된다. 그렇게 쌓인 먼지들이 두 몸통에 쌓인다. 침식Erosion이라는 개념은 이 작품부터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아트 바젤 홍콩에서 관람객들이 작품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물론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결국 언어라는 매개를 넘을 수 있는 건 예술이고, 예술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머징 아티스트’라는 말 계속해 ‘이머징’ 상태에 있는 건 좋은 일이다. 교사보다 학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좋아한다.

동시대 미술이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는 거다. 그렇다면 작업이 만들어지는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Roksana Pirouzmand, 'Mountains', 2025, Ceramic, steel, water, water pump, patina, 69 x 102 cm.

Roksana Pirouzmand, 'leaning, rocking, sanding', ceramic, thread, fabric, motor, 2025. Left body, 79 x 59 x 15 cm, right body 79 x 59 x 17 cm.

Neon Parc의 디렉터 Geoff Newton

아트 바젤 아트 바젤은 다양한 지역 간 담론과 흐름을 가능하게 하기에 동시대 미술의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매우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관람객 수도 많으며, 다양한 갤러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다.

홍콩 시장 홍콩 시장은 특히 견문이 넓고 세계를 많이 여행한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다. 세계의 주요 미술 거점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상황에서, 홍콩은 갤러리, 작가, 컬렉터들이 특정한 의도 없이 자유롭게 만나고 협업할 수 있는 평등한 장이다.

인상 깊었던 발견 Fergus McCaffrey의 부스가 좋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탈리아 작가 Carol Rama의 강렬한 추상화가 인상 깊었다.

동시대 미술이란 동시대 미술은 정치적·감성적으로 현재를 반영하고, 작가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관람객에게 도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Neon Parc는 호주 멜버른의 갤러리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사회 속에서 예술가들의 역할을 믿는다. 무엇보다 예술가들의 ‘야망’을 응원한다.

Neon Parc의 아티스트 Nabilah Nordin

작업 ‘Script Site’는 모래, 석회 페인트, 분진, 안료, 염료, 에폭시로 만들어진 속이 빈 형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재료들이 쌓인 듯 발굴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반질반질한 철선이 그 주변을 감아 돌며 무게를 받쳐 준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부스에 있으면서 재료와 과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무엇보다 이 조각들을 ‘건축적’ 스케일로 보고 싶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요즘 내 관심사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발견 바로 옆 부스였던 Sweetwater 갤러리의 Sofia Defino Leiby의 작품. 쇼핑백, 청바지, 물방울 무늬, 쿠키 커터 등이 쌓여 개인적이면서도 약간 “어긋난” 느낌을 만들어내더라. 반투명 패턴으로 이미지, 질감, 패턴들이 층층이 쌓이며 재구성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LC Queisser의 Elene Chantladze 프레젠테이션도 무척 좋았다. 그리고 이번 홍콩에서 게를 많이 먹었다. 멋진 저녁 식사 자리가 많았다.

미술이 발견해야 하는 것 조각이 더 많아져야 한다.

동시대 미술이란 이상한 시대다. 그럼에도 동시대 미술이 돋보이는 순간은, 바로 동시대 미술의 안과 밖을 역지로 보고 의미를 강요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그저 눈앞에 놓인 사물의 가능성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숨 쉬게 둘 때, 우리의 동시대성이 드러날 것이다.

실린더의 디렉터 노두용

첫 아트 바젤 개인적인 이야기이자, 대부분은 잘 모르는 실린더의 이야기다. 조금 길지도 모른다. 실린더를 오픈한 지 두 달이 지난 2021년 1월, 개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나 했다. 그림판에 엉망진창인 나의 손글씨로 프리즈와 아트 바젤을 쓰고 둘 중 한 페어에 참가하는 날까지 그 포스팅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실린더는 정식 갤러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운영하는 나 역시도 사람들이 알 만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건 어쩌면 봉천동이라는 동네에서 쓰아올린, 철없던 젊은 나의 마지막 객기이자 작가 지망생의 발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실린더를 오픈하기 전까지의 나는 가장자리에 머무는 삶의 연속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서른 살이 되자마자 코로나19와 함께 세운 여러 계획들이 틀어지게 되면서 이 '실린더'만이 나 개인적으로 사회 속 온전한 부품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아 보였다. 남들이 불러주는 작가가 아닌 상태로 기간, 대안 공간 같은 미술이 순전히 미술로 보여지는 장소 속에서 간혀 살아왔지만, 결국 돈을 벌어 생존하는 법을 알아야 했다. 그래서 그간 상업미술과 아트 페어의 작동 방식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이 있었다.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후회로 남을지도 모르지만, 그 조악한 선언문이 내게는 훈자만의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포스팅을 지우는 거고, 아니면 사소한 가십거리가 되어 조용히 잊혀지겠다. 그렇다면 미술계에서 완전히 퇴장을 하겠다. 그런 도박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나 실린더는 어느새 갤러리가 되었고, 2023년 프리즈 서울 포커스 아시아 섹션에 선정됐다. 작년 10월에는 프리즈 런던에도 다녀왔다. 반면 아트 바젤은 서울 에디션도 아닌 홍콩이라 고민하다 어플라이를 했고, 이렇게 선정됐다. 참가 확정 메일을 받을 때부터 페어가 끝난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2021년에 그 포스팅을 했던 당시의 복합적인 감정이 머리에 맴돈다. 이번 아트 바젤 홍콩까지의 경험은 실린더를 이루는, 그리고 앞으로 실린더를 이뤄갈 중요한 코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흑역사 같은 결말은 피했고, 포스팅에서 시작된 서사가 완결됐다는 점에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디스커버리즈 섹션 갤러리는 여러 형태로 출발한다. 동시에 작은 갤러리는 그만큼 많이 생겼다 사라진다. 격변하는 예술 지형에서 아트 바젤 홍콩의 디스커버리즈 섹션은 출렁거리며 고군분투하는, 커리어가 짧은 갤러리에게 닳과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섹션에서 갤러리는 메가 갤러리와 같은 공간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진단체 볼 수도 있고, 앞으로의 형태를 다듬을 수도 있다.

홍콩 시장 홍콩은 언제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항상 굳건히 자리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목격되고 기록된 유·무형의 흔적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예전보다 조금 위축될지라도 긴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홍콩의 유산은 여전히 대체불가한 시장의 플랫폼으로서 자리한다. 서울과 별개의 형태로, 그간의 몸집을 유지하고 키워가며 지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실린더의 노두용이 말하기를, 실린더는 가변적인 성격을 지닌 두 개의 직육면체와 함께 작동하는 갤러리다.

실린더의 작가 권현빈과

디스커버리즈 섹션 압축된 시공간 속에서의 감사한 경험이었다. 작업실에서 만져 온 돌의 파편들이 때, 장소, 사람을 운 좋게 만나 거기 놓였다. 특별히 다르게 준비하려 했다기보다 이전과 같은 하나의 전시로서 최선을 다했다. 오랜 동료와 함께 준비해서, 약간의 부담을 겹들인 즐거운 놀이 같았다고 해야 할까.

기억에 남는 만남 관람객들이 가볍게 산책하듯 바라봐주기도 했고, 버스 안 헤드셋을 통해 소리와 조각에 호응하며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이의 눈이었는데,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음에도 무언가 같은 곳을 본 것 같은 순간이 분명 있었다. 물론 나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웃음) 작업 '물루(Mulu)'를 소개하고 싶다. 큰 석회암 판재를 바닥으로 내리쳐 생긴 파편들을 통해, 많아지고 작아지고 평평해지며 나아가는 길을 따라가봤다. 파편에 잉크를 붓거나 바르면 돌 기공의 밀도 차에 따라 흐르고 스며들며 맨눈으로 보이지 않던 돌 내부의 지도가 드러난다. 그걸 다시 알게 알아내기도 한다. 깨짐과 스밈과 연마의 흔적이 쌓여 시간의 이미지가 되는 거다. 조각한다는 것이 돌과 시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일이라면, 이번 전시에서 '물루'를 통해 그 느낌을 더 보여 주고 싶었다.

'이미징 아티스트'라는 말 어느 정도 실용적 차원의 호명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의 분류를 떠나 생각해 본다면, 작업의 나이와 작가의 나이가 같지 않고, 새롭거나 오래됨이 무언가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불현듯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부터 신진 작가가 아니게 되는 걸까? 궁금하다.

동시대 미술이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건, 지금의 사람이 자신의 재료, 사건, 몸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어쩌면 '동시대 미술'에 대해 윤곽지게 되는 건 한참 후의 일일 것 같다.



권현빈 작가의 'Antidromic Rave' 전시 전경



홍콩의 그 얼굴

“홍콩은 멈추지 않습니다. 홍콩에선 걸음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꼭 그런 멘트가 흘러나온다. 돌아오기 직전 여러 기사와 리포트가 메일함으로 들어온다. 이번 아트 바젤 홍콩은 총 91,500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바로 첫날부터 피카소의 작품이 최고가인 약 60억원 내외에 판매됐다. 오래 서 있었던 화이트 큐브에서 만난 트레이시 에민의 작품 또한 24억에 판매됐다.

한 메가 갤러리에서 작품이 어떻게 팔리는지, 갑자기 궁금해진 나는 거기 오래 서 있었다. 갤러리의 큐레이터가 친절하고 상냥한 눈으로 이야기한다. 그걸 듣는 사람 역시 호응한다.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대형 판화 작품은 보기 드물거든요. 오늘 유독 이 작품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네요.” “무척 섬세한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몇 겹의 층으로 쌓여가는 말들, 도시들, 거래와 미술상들.

어쩌면 아트 바젤 한복판에서 나는 주로 깜박거리지만 하거나 어떤 케도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도시의 속도감, 내 눈에 비치는 것들.

아름다움도 깊어지듯 모두 암호 같았던 도시 속에서 자주 가만 서 있었다. 그런 홍콩의 얼굴을 그려보다 그만뒀다. 예전 같지 않다는 푸념도, 미래를 향한 낙관도, 그 모두가 이 도시의 얼굴일 거다. 홍콩은 멈추지 않는다. 20년 뒤에도 아마 그럴 거다. 그때쯤 이 원고는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그 전에 망한 원고도 어딘가 쌓여 있겠지. 내가 이 도시에서 본 몇 겹의 빌딩과 만남, 그림, 계단들과 함께. □